



포행·공양 빼곤 자정까지 홀로 번역·원고 정리

혜경 스님이 한 신도가 임시로 빌려준 임대 아파트 거실 한켠에서 <법화경> 번역과 해설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혜경 스님 (화담정사 조실)

법화경 권위자...경전 번역·강의에 주력

혜경 스님은 | 1933년 전남 여수에서 출생했다. 스님은 56년에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불가에 귀의했다. 법명은 혜경(惠耕) 당호는 회옹(晦翁). 재단법인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과 법화불교대학 학장을 지냈다. 스님은 85년부터 현재까지 경전번역에 주력하고 있다. <법화경> 번역과 해설의 권위자로서 출·재가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법화경 이야기>(법우사), <법구경 입문>(법우사), <법화삼부경>(문학예술사), <우리말 법화경>(도서출판 삼양), <법화경 총설>(도서출판 삼양), <관무량수경>(집문당) 등 다수의 번역서를 내놓았다.

경 기도 양주시 화담정사 가는길. 형형색색의 꽃들이 나무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나무숲 사이로 난 길에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있었다. 꽃을 보니 오늘날과 달리 부처님의 법비에 흠뻑 젖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찻에 도착하니 노스님이 출타중이다. 세수 74세의 혜경 스님은 신도가 임시로 마련해준 질 인근의 임대아파트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 왜 노스님이 아파트에 머물고 있을까? 스님은 나름대로 5년불사를 계획해 두었다. 그동안 <법화경> 번역서를 많이 냈지만 법화경에 관한 종합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이다. <법화경> 해설서는 <관무량수경> 1권, <법화경> 8권, <관보현보살행법경> 1권 등 총 10권으로 출간할 예정이고 일에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임시로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것.

스님은 거실 한켠에 컴퓨터 책상을 놓고 큰 돋보기를 보며 도우미(?)도 없이 자료수집에서 초안작성, 최종 원고 작성까지 <법화경> 해설서 발간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6개월에 한권씩 발간하는 빠박한 일정이다보니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작업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스님은 아침에 1시간동안 논길을 산책하고, 매 끼니마다 잠깐씩 공양하는 것 빼고는 꼬박 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권의 3분의 2밖에 쓰지 못했어요." <법화경>의 최고 권위자인 혜경 스님. 스님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런데 몸이 편안하면 작업을 놓아야 하는데 작업을 놓

<법화경> 종합해설서 발간 '5년 불사' 중 자구 번역 연연않고 해탈에 답을 두고 해석



화담정사 인근의 논길을 포행중인 혜경 스님.

으려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조용히 피뇌였다. 스님은 "평생 해온 작업을 이제는 집대성할 때가 되었다"며 "후학들을 위해 고생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고. 또 일도 일이지만 공양까지 혼자 챙겨 드셔야 하니 보통일이 아니다. 독살이 이유에 대해 스님은 "집에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일이 진행 안되니 어쩔수 없이 집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님이 서울 무설정사에 계시 때는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학은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불법의 대의를 설명해, 많은 신도들의 전경이 이어졌었다. 또 스님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침을 선사했었다.

스님은 <법화경>이 백제 위덕왕때 현공 스님에 의해 일본으

로 전해졌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역수입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한다.

현재 한국의 강연에서는 이제 <법화경>을 배우지도 않고 있다. 문제는 한국적인 사상이 전혀 없는 일련정종계통의 해설서만 난무하고 있는 것. 일반 법화종 계통의 불교가 한국에서 흥하고 있는 이유라는 스님의 지적이다.

"일본의 해설은 꼭 <법화경>을 하면 '이익을 준다' '복을 준다'는 식"이라며 "하지만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주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줄 뿐"이라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일본에서 <법화경>을 하는 정통 천태종이 들어왔으면 '나무묘법연화경'을 하지 않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해설서의 도입부에 '나무아미타불' 참회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스님은 "의식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염불을 해야 한다"며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자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법화경> 해설서도 글자의 번역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 해탈에 답을 맞춰 해석하고 있다.

스님은 "아침에 아미타불 만반, 준제진언 천번만 하면된다"며 "부처님 명호인 '아미타불'은 내가 아미타불임을 알게 해주는 염불이다. 선종에서 '이뤄고' 화두가 결국 '나'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성불의 가능성을 스스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를 건지는 길"이라는 것이 스님의 '단괄법문'이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가족이 늘었어요 사랑이 늘었어요

오늘 우리집에 새 가족이 온대요.
친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으로 잠시
우리집에서 함께 살게 된 동생이랍니다.
이제, 엄마도 나눠 갖고, 장난감도 나눠 가져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짝 찜 느낌이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와도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도록 만들어 줄래요.

위/탁/부/모/가/ 되/어/ 가/족/의/ 사/랑/을/ 나/눠/ 주/세/요.

▶가정위탁보호 사업이란?
친부모의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살펴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 / 전세자금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기타 민간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02)597-9119 서울 가정위탁지원센터 : 02)325-9080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1758-8801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656-2510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 : 032)866-1226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2)351-1206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 042)242-5240~1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2)286-1548 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033)764-7001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234-3979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821-9117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43)250-1226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41)577-1226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813-3963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55)237-9397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63)276-2600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61)279-1226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4)747-3273

“욕망 누르는 것이 자비”

해경 스님의 가르침

결로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주 진리 자체가 다 외양상이고, 확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 자체가 더 커지려고 하는 것도 우주진리의 속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멀리 날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명체 모두가 우주만물 중에서는 자기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뇌의 욕망이 크고, 서로의 존재만 내세우다보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간에 부딪침을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을 없애라는 것과 다릅니다.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누르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욕망을 누르면 바로 보리심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자제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적멸은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순환원리이기도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분들은 동물들을 해치는 것에만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식은 죄가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식당을 가서는 항상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세요. 그래야 먹어도 극락이요, 뱃속도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있어서 육식도 있습니다. 육식에 얽매이지 말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나무아미타불’ 한다면 그것은 지장보살의 화신입니다. 그

래서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습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라시(무의식)의 세제가 80~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습은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전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상이나 부모의 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습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생물이 처음 생긴 아메바로부터 지금까지 진화하며 축적된 습을 고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바로 이런 습을 바꾸기 위한 행위입니다. 또한 좋은 버릇들이라고도 해도 맞습니다. 구슬을 버

어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화경>은 몸으로 알아야 합니다. 읽을 때 맑은 정신을 갖고,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자기로 있어야 모든 등장인물이 결국 나인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전의 ‘사리불야’는 사리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1인칭으로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시오입(開示悟入)”이라.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 불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칸트의 목적론과 비슷하게, 중생을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개인의 소원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성취입니다. 불교의 성취는 결국 중생구제에 있습니다.

<법화경>은 보살행 즉 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곧 극락이요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의식치 말고, 그러한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이 보살행이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불법의 실천이며 보살도를 완성하는 가장 쉽고도 올바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선의 범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참선의 범위를 염불선까지 넓혀야 합니다. 중생들이 자동자를 운전하거나 일하면서 참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에서 사는 스님들은 참선이 가능하지만 속세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예기입니다. 중생들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참선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인 것은 맞지만 일반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염불수행법도 제시했으면 합니다.

정려=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해경 스님이 신좌인 화담정사 주지 해허 스님(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8>



‘분별심’은 어떻게 분별하지?(1)

가까운 사람 중에 언론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참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던 그건 분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히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반야심경>을 함께 읽어 가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도둑도 이 세상에는

이미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바깥세상을 받아들이는데 그럼 내 감각기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 옆 사람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주변 사람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잘 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판단도 하지 말고, 그런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을 향해 ‘네 발 밑이나 잘 살펴봐라’라고 일침을 주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게 해야 할까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 앞에서 ‘너의 행동에 대해 옳으니’ 옳으니 그르니 분별심을 내지 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식이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분별심인 걸까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가 나왔을 때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분별심을 일으킨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말이니까요.

부처님 자신도 막 출가한 뒤에 당시 이름 높은 수행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가장 완전한 경지까지 도달한 뒤에는 “이것은 공극의 경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이런 행동은 역시 뭐가 옳고 그른

지를 세밀하고 냉정하게 따져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을 보아도 의외로 부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일, 선하지 않는 일, 올바른 일, 뜻된 일을 판단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제부터 설명할 터이니 그것을 고요한 곳에 앉아서 골똘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주문을 항상 냅니다. 나아가 당시 다른 종교나 사상의 오류를 예리하게 짚어내어 그들이 왜 착하지 않고 그릇되었는지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예도 꽤 많습니

다. 게다가 과거 일곱 부처님의 그 유명한 계승을 보아도 “그 어떤 악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여 그 마음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당부를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선악과 시비를 따져야만 하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어떤 경계와 맞닥뜨려서도 일체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불자들은 이런 문들을 다 해결하였을까요?

■ 이미형(동국역원 역경위원)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참뜻은?

부처님, 세밀하고 냉정하게 따져 본 후

제자들에게 깊이 생각해 판단할 것 주문

다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군요. 그들이 있으니 경찰이며 판검사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기꾼을 두고 나쁘다거나 경찰을 두고 옳다고 분별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말씀인 것이지요.”

나는 이때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말은 불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부담없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까’라는 질문조차도 분별심에 사로잡힌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질문이라 생각해서 궁금해 하지도, 궁금해 할 수도 없었던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때문에 생사 윤회하는 것이니 이런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니 지금의 나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경지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옳다 그르다, 미다 곱다 착하다 못했다... 이런 상대적인 생각을 내지 말라는 말이라는 대답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은

지를 세밀하고 냉정하게 따져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을 보아도 의외로 부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일, 선하지 않는 일, 올바른 일, 뜻된 일을 판단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제부터 설명할 터이니 그것을 고요한 곳에 앉아서 골똘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주문을 항상 냅니다. 나아가 당시 다른 종교나 사상의 오류를 예리하게 짚어내어 그들이 왜 착하지 않고 그릇되었는지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예도 꽤 많습니

다. 게다가 과거 일곱 부처님의 그 유명한 계승을 보아도 “그 어떤 악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여 그 마음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당부를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선악과 시비를 따져야만 하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어떤 경계와 맞닥뜨려서도 일체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불자들은 이런 문들을 다 해결하였을까요?

■ 이미형(동국역원 역경위원)

元·氣·回·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蓼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화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완성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상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부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체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貴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精力을 山蓼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蓼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하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踴躍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蓼

“잠시 스치는 인연도 소중하게 받아들여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특히나 슬프거나 어렵고 힘이 들 때 ‘누군가’라는 존재는 큰 힘이 되어준다. 그 누군가가 도반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무는 돌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 주고,
문으로 막아 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저자 **해철스님** (육전 대성사 주지)
1995 한국불교대학교 중성 성원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00 육전대성사 주지 취임
2001 육전군 바른계 살기 종교문화위원회장
2003 한국불교대학교 중성 총학교구 남부본원장
2004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장 취임
2006 한국불교신문사협회 고문
2006 육전군 문화원 총무위원 이사

선남선녀 불자들의 특별 만남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육전읍 대성사 043)732-5560

120P / 신국판 / 값 6,000원 / 육전 대성사